

2020 특별메세지 II.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1. 지혜있는 농부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절은 언제일까? 봄은 씨를 뿌려서 중요할 것이고, 여름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물론 가을은 추수를 하기에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추수가 끝난 겨울은 농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겨울의 특성은 추운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겨울은 밤이 길고 계절도 길다. 이때 농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겉으로 볼 때 농부에게 있어서 겨울은 일이 없는 무의미한 시간들일 수 있지만, 사실 농부의 성공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1) 지혜로운 농부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을 준비의 시간으로 보낸다. 겨울은 앞으로 다가올 봄을 위한 준비의 계절이다. 그래서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겨울을 어떤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씨를 뿌리며 다가올 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씨를 뿌리는 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만 씨를 뿌리기 전의 비전과 계획은 겨울에 완성된다. 그래서 겨울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의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실재적인 시간이다.

(2) 어리석은 농부

어리석은 농부는 '준비'가 없는 농부를 말한다. 겨울이 되니 할 일 없다고 시간을 낭비한다. 게을러지고, 도박을 하고, 술로 시간을 허비한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낼까? 봄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전이 없다. 소망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한다.

어리석음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인은 자신이 다시 올 것을 기약하고 그에게 있었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다. 어느 날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왔고,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종들은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꾸중을 들었다.

성경은 '착함과 충성'을 같은 형질로 보듯이 '악함과 게으름'을 같은 형질로 본다. 악하고 게으른 상태가 바로 '어리석음'의 상태이다. 악하고 게으른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이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는데, 마치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다.

오는 것이 사실인데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를 속인 상태가 '악함'의 정의이다. 스스로를 속인 악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한다. 분명히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말한다.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이다.

[전도서 1:2-3]

2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3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어리석음'은 솔로몬이 전도서 1:1에서 고백한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은 '미래' 즉, 마지막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시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이다. 시간의 속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다는 것이다. 인생의 계절의 법칙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인생의 그래프가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갈 시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올라갔다면 언젠가 내려갈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오만하다.

(3) 마지막 때는 결국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있는 처녀로 나뉜다.

[마태복음 25:2-5]

-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마태복음 25장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오겠다는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는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모두가 잠을 잤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두가 잠을 잤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차이일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하여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봄이 오듯 신랑이 왔다는 것이다. 결국 더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하늘에서 임하는 지혜로 겨울을 살아내라.**(1)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6-8]

- 6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 7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 8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이치와 법칙이 아니다. 신령한 지혜이다. 바울은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6절), 즉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7절). 바울은 너무나 명확히 멸망하여 버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와 비교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이 지혜를 모른다(8절).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세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지혜는 이 땅의 정점 위에 있는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알 수 없는 '복음과 진리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이 땅에서도 승리를 줄 것이다. 성도들에게 보장된 영광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니엘의 믿음, 다윗의 믿음, 요셉의 믿음, 욥의 믿음은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다. 그 믿음이 다니엘, 요셉, 다윗, 욥에게 영광의 삶을 실제로 살게 했다.

(3) 바라고 믿어야 한다.

모든 것이 더딘 것 같은 겨울에 있는가? 약속을 분명히 아는데 그 약속의 시간을 잊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 겨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농부가 되어야 한다. 겨울과 같은 이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한다. 겨울과 같은 계절이지만, 다가올 봄을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봄은 오고, 다시 아침은 온다. 더딘 것 같지만 신랑되신 예수님은 오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지혜가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